

타자 마음의 문제에 대한 이인칭적 접근과 철학상담*

김효은**

주제분류 심리철학, 방법론

주요어 이인칭적 접근, 상호작용이론, 이론 이론, 모의실험 이론, 갤러거

요약문

심리철학에서 타자 마음의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타인에게 심적 상태를 부여하고 그 사람의 행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지를 다룬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론이론과 모의실험 이론은 최근까지 각기 삼인칭적인 접근과 일인칭적인 접근의 마음이론을 발전시켜왔다. 본 논문은 이 두 이론에 대한 대안적 이론으로서 이인칭적인 설명을 옹호한다. 본 논문의 목표는 두 가지이다. 첫째, 갤러거의 상호작용 이론은 다른 마음의 문제에 대한 유망한 이인칭적 설명임을 주장한다. 둘째, 상호작용 이론은 철학상담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특히 갤러거의 상호작용이론에서 세단계의 상호주관성에 초점을 맞춘다. 그의 이론은 이론이론이나 모의실험이론보다 마음 결여에 대한 대표적 예인 자폐증상에 대해 더 넓은 범위의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론이론이 마음이론을 가지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거짓믿음 시험은 실제로 적절하지 않다. 이에 기반하여, 필자는 갤러거의 이인칭적 이론에서 상호주관성의 세 단계, 즉 일차상호주관성, 이차상호주관성, 서사적 상호주관성이 철학상담의 주요 특성인 상호성, 비지시성, 반성성의 내용과 대응한다는 점을 보인다. 이를

* 이 논문은 201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8063466) 이 논문을 심사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의 세심한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철학탐구 제42집

통해서 타인의 마음 이해에 대한 이인칭적 접근인 상호작용이론은 철학상
담의 이론적 기반이 될 수 있다.

1. 서론

철학은 메타적인 이론적 작업임과 동시에 그 개념적 작업이 실제 발생하는 현상들과 대응되어야 하는 인식론적, 존재론적 규범성을 가진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타자 마음의 문제(other minds problem)¹⁾도 예외는 아니다. 타자 마음의 문제는 오랜 역사동안 ‘마음’을 블랙박스처럼 다루어왔던 탓에 심리철학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²⁾로 간주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전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왔다. 타자의 마음이란 근본적으로 내가 그 상태에 직접적으로 접근하거나 경험하기 어려우므로, 마음을 블랙박스로 가정하고 접근하는 방법은 자연스럽게 여겨졌고 이는 삼인칭적 접근과 일인칭적 접근으로 분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심리철학에서의 ‘타자 마음의 문제’에 대한 설명은 각기 삼인칭적 접근법과 일인칭적 접근법을 구체화한 이론 이론(theory theory, 이하 TT)와 모의실험 이론(simulation theory, 이하 ST)을 둘러싸고 논의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이 두 이론과 두 이론의 통합적 시도의 설명이 가지는 한계가 드러나면서 이인칭적 접근의 설명들이 여러 방식으로 발전되어왔다.

-
- 1) 익명의 심사위원 한분은 ‘타자’가 오역의 소지가 있으므로 ‘타인’이 적절한 번역이라고 제안하셨다.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 ‘타자’라는 표현을 고수한 이유는 ‘other minds’는 기본적으로 우리와 같은 다른 인간에 대한 것이지만 더 나아가 유사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적절한 변경을 더하여) 동물들, 그리고 여타의 다른 실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열린 논의가 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차후의 또 다른 논문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 2) 현대 심리철학에서 주요 문제로 떠오른 ‘어려운 문제(hard problem)’는 마음에 대한 두 접근들을 조화롭게 설명하기 어려운 데에서 기인한다. 즉, 동일한 대상에 대해 일인칭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들과 삼인칭적, 경험과학적 방법을 통해 접근한 연구들을 어떻게 연관지을 수 있는지가 주요 문제였다.

이 논문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진다. 첫번째 목표는 이인칭적 접근법이 기존의 타자마음 이해에 대한 기존의 설명인 TT와 ST보다 더 큰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다.³⁾ 구체적으로, 최근 제안된 손 갤러거(Shaun Gallagher)의 상호작용이론을 통해 이인칭적 접근법이 타자마음 이해에 대한 경쟁력 있는 이론임을 주장할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갤러거의 이인칭적 접근법의 설명은 타자마음 이해와 관련된 응용철학의 한 분야인 철학상담의 특성과 가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대조적으로, 기존의 설명인 이론이론과 모의 이론은 심리 상담에서 가정되는 설명들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2절에서는 타자마음 이해에 대한 전통적인 두 경쟁적 접근들인 일인칭적 접근과 삼인칭적 접근의 특징 그리고 이 두 접근방식을 마음이론으로 발전시킨 이론이론(theory-theory)과 모의실험 이론 (simulation theory)의 주요 주장을 살펴보고 두 입장이 가지는 공통 가정을 비판할 것이다. 3절에서는 이인칭적 접근 중 갤러거의 설명을 ‘삼단계 이론’으로 프레임하여 이론이론과 모의이론과의 설명력을 비교할 것이다. 이 논문은 갤러거의 이인칭적 설명이 더 넓은 범위의 피설명항들을 설명해준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선호할만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타자마음 이해와 관련해 대표적으로 종종 거론되는 자폐 상태를 피설명항으로 제시할 것이다. 4절에서는 갤러거의 설명에서 보여준 이인칭적 접근의 세 단계가 타자마음 이해의 철학응용 분야인 철학상담에서의 마음 이해의 특징인 상호성, 비지시성, 반성성과 대응되며, 대조적으로 마음을 블랙박스로 가정하는 기존의 두 이론들은 철학 외 분야에서의 기존 상담의 이론적 전제라는 함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3) 이기홍 선생님의 논문(2004) 또한 이론 이론, 모의실험 이론을 논의하고, 구현 이론(embodiment theory)을 이인칭적 접근으로서 다루고 있다. 이기홍 선생님은 세 가지 접근이 상호보완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반면, 필자는 구현이론을 포괄하여 발전시킨 상호작용이론이 기존 이론의 보완적 이론이 아니라 더 우세한 설명력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이는 갤러거의 3단계 이론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다.

이를 통해서, 이 논문은 이인칭적 접근의 두 함의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결론지을 것이다. 하나는 이론적 함의로, 이인칭적 접근의 설명은 기존의 두 이론들보다 더 큰 설명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실천적, 응용적 함의로서, 이인칭적 접근은 기존의 타자마음 이해의 응용과 실천적 영역에 철학상담이 중요한 의미에서 정당화되고 추가되어야 할 이유를 제시한다고 하겠다.

2. 타자마음 이해에 대한 전통적 접근

이 절에서는 타자 마음에 대한 전형적인 두 접근방식인 삼인칭적 접근과 일인칭적 접근이 발전된 두 이론, 이론 이론과 모의실험 이론을 검토함으로써 기존의 타자마음 이해의 방식이 추론인가 지각인가의 구도로 이루어져 왔음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먼저 두 접근방식의 기본 아이디어를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론 이론과 모의 이론의 주요 내용을 추론과 지각이라는 경쟁구도 안에서 살펴보겠다. 이는 3절에서 깰러거의 이인칭적 접근에 기반한 설명과 비교하기 위한 토대작업이다.

2.1 삼인칭 대 일인칭적 접근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서 무릎을 심하게 긁힌 사람은 그가 만약 통증을 느낀다면 얼굴을 찡그리거나 소리를 낼 것이며, 상처가 난 무릎을 들여다보며 감싸쥐거나 할 것이다. 그런 반응이 없다면 그는 의식이 없다고 판단될 것이다. 이는 주어진 자극에 의한 반응을 통해서 마음이나 의식의 여부를 분별하는 대표적인 삼인칭적 접근 방법의 기준이다.⁴⁾ ‘행동이

4) 이 행동주의적 기준은 영상기법의 발전으로 뇌의 혈류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촬영하는 삼인칭적 방법으로 발전하였다. 그래서 의식적 경험과 두뇌와의 연관관계

나 행위하려는 성향'이 통증과 같은 심적 상태의 필요충분조건인가? 아니다. 경미한 통증을 경험하는 경우에 우리는 어떤 행동이나 행동을 하려는 성향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또, 금욕주의자의 경우는 통증을 겪는 일반적 사례에서의 행동 성향을 끊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심적 상태를 설명하는 행동 성향, 그리고 삼인칭적 접근이 채택하는 기준은 필요하지 않다. 거꾸로, 행동은 통증이라는 심적 상태를 아는 데 충분조건일까? 통증을 경험하지 않으면서도 통증을 겪는 행동을 고의적으로 흉내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행동이나 행위성향은 통증이나 의식에 있어서 충분조건도 아니다. 무릎의 통증을 경험하는 경우, 행동 성향의 분석을 통해서 제 3자가 보건대 통증을 느낀다고 추정할 수는 있지만 의식에 강렬하게 나타나는 괴롭고 쓰라리고 따끔거리는 감각의 본질적 특성은 밝히지 못한다. 그 통증을 겪고 있는 당사자인 자기자신의 경우로부터만 그 통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반면, 다른 이들은 내가 발화하는 “아야!”와 같은 통증언어나 얼굴을 찡그리고 무릎을 비비는 행동, “쑤시듯이 아프다”는 나의 언어적 기술, 그리고 통증에 대응하는 신경생리학적 속성의 예화를 통해서 경험에 대하여 알게 된다.

그렇다면 일인칭적 접근이 통증의 내용을 아는 데에 있어 더 본질적인가? 일인칭적 접근의 권위는 자신의 마음의 내용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내성적 방법에 대한 데카르트적 확실성에서 기인한다. 데카르트의 사고실험을 빌자면, 만약 나의 팔이 불에 데어 뜨거움을 경험하였을 때, 내가 꿈 속에 있을 경우를 상상할 경우 그 뜨거움을 일으키는 화롯불이나 그 뜨거움을 느끼는 나의 팔의 존재를 의심할 수는 있지만, 내가 지금 뜨겁게 느낀다는 판단은 틀릴 수 없다.(Descartes 1641) 이 특권적인 인식론

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연구 방법론이 일인칭적 접근과 삼인칭적 접근 간의 어느 정도의 통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또 타자의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지 않는가 하는 낙관적인 견해가 있으나, 본고는 이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취한다.

적 지위는 근대의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하고 있다”는 명제적 내용이 필연적인 참으로 판단된다는 직관에서 출발한다. 각 마음은 자신에게 명석 판명한 특성을 가지는 투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 마음이 현재 상태에 대하여 가지는 자각으로부터 도출되는 지식은 확실성을 가진다는 주장이 이를 뒷받침하였다. 그래서 내성(introspection)으로부터 얻은 지식이 오류 불가능하며, 직접적이라고 역설하게 된다.

데카르트적 확실성에 대한 도전은 어떤 사람이 통증에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실수하게 되는 사례들에 의해서 제시되어왔다. 예컨대, 눈을 가리운 피실험자가 그의 목에 칼이 지금 대어진다는 것을 듣는 경우, 얼음 조각이 대어질 때 조차도 통증을 느끼게끔 된다는 사례는, 내성적 접근의 확실성이 붕괴된다는 것을 보여준다.⁵⁾ 이렇게 일인칭적 접근과 삼인칭적 접근은 모두 역설적으로 타자 마음의 이해에 대한 어떤 확실성도 담보하지 못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보충하고자 경험적 사실들이나 자료들과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체계화한 이론이 이론 이론(TT)과 모의실험 이론(ST)이다.

2.2 이론-이론: 타자마음 이해는 일종의 추론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마음 상태의 여러 양상들 예컨대, ‘의도’, ‘욕구’, 등을 그 타자에게 부여한다. 이 때 부여하는 방식은 여러 방식이 가능한데, 그 중 이론 이론(Theory-theory, TT)에 따르면, 각 심리 상태들은 그 타자의 행동 반응이나 자극들이 어떻게 인과적으로 연결되는지를 통해서 추론된다. 이러한 ‘마음 이론’(theory of mind) (Premack and Woodruff 1978, 515)을 통해서 행동반응에 직접적

5) 내성의 불확실성은 이렇게 경험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이미 셀라스(W. Sellars 1956)에 의해 지적되었다. 셀라스는 마음의 상태는 내성을 통해서 직접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물리적 상태를 매개로 한 이론어를 통해 주어지기 때문에 내성을 통한 일인칭적 접근의 확실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으로 드러나지 않는 타자 안에 있는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이론 이론이다. 예컨대 어떤 욕구나 믿음, 그리고 의도 와 같은 심적 상태에 대해 일종의 이론을 가지게 되면 타자의 행위에 대해 수월하게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론’에 기반해서 그 타자가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행위할 수 있을지도 예견할 수 있다. 여기서 마음이론의 적용은 타자의 마음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도 포함한다. 나 자신에 대한 마음 또한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고 ‘나는 지금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는 욕구 자체도 이미 이론적 구성물이라는 것이 TT의 설명이다.⁶⁾

이러한 이론적이고 법칙적인 TT의 설명은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지닌다. 첫째, 타자마음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이론에 기반하여, 특정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므로 ‘연역추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이러한 이론 기반의 설명은 마음을 일종의 ‘블랙박스’로 간주한다. 타자의 마음은 타자의 행동반응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추론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통해 추론해낼 수 있는 것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론은 우리 안에 이미 ‘내재’하고 있는 본유적인 것이어서 타고난 능력들이 외부자극에 의해 발현되는 중요한 시기(critical period)에 완전히 갖추어진다. 그 증거 중 하나가 중요한 시기인 4살이 지나면 어린이들은 보통 거짓-믿음 테스트를 통과한다는 것이다.

TT에 따르면, 타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기초는 다음의 두 가지 방식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 능력을 가지는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것이 바로 거짓-믿음 테스트(false-belief test)(Wimmer and Perner 1983, Baron-Cohen et al. 1985)⁷⁾이다.

6) 이때, 이론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에 따라 TT도 여러 버전의 설명으로 제시되었다. 이 분류 기준과 종류에 대하여는 이기홍(2004)의 321쪽에 소개되어 있다. 이 논문은 TT나 ST 자체에 대한 논의가 아니므로 필요한 맥락을 제외하고는 상세히 다루지 않는다.

- 1 세상에 사물들이 실제로 있는 상태
- 2 다른 어떤 사람이 1 에 대해 잘못 믿는 상태

일반적으로 4세 이전의 아이들은 이 두 상태를 구분하지 못한다. 4세 이후에 이 두 상태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은 타자의 마음 상태에 대해 추론 내지 추정하는 능력, 즉 마음 이론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능력은 타자들이 그들 자신의 믿음과 의도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과 의도가 그들의 행동을 설명해줄 수 있고, 우리는 바로 그 심적 상태에 의거해서 그 타자들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의거해서 TT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는 자폐(autistic) 상태를 마음이론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생각은 심리철학에서 타자의 마음 문제의 출발점과 동일한 문제제기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타자의 마음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통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 블랙박스에 대해 추론하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생각은 앞서 일인칭적이고 내성적인 접근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반영하여 발전된 삼인칭적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2.3 모의실험 이론: 타자마음 이해는 일종의 지각이다

타자마음의 이해는 이론적 구성물인 개념들을 통한 추론이라고 주장하는 TT와 달리, 모의실험 이론(Simulation theory, 이하 ST)은 이론적 추론이 아니라 지각적 차원의 이해로 간주한다. TT와 ST가 서로 경쟁적인 이론인만큼, ST는 TT의 설명에서 타자마음의 이해가 이론적 추론으로

- 7) 비머와 페르너에 의해 창안된 거짓 믿음 테스트는 바론 코헨이 본문의 두 가지 상태, 1과 2에 대한 스토리(샬리-앤 테스트)를 만들어 구체화하였다.

이루어진다는 견해에 부정적이다. TT의 설명대로라면, 예컨대 타자의 믿음에 대한 이론은 일반화되는데, 동일한 믿음 내용-예컨대‘아이스크림은 달콤하다’-이라 하더라도 두 사람이 그에 따라 생각하거나 보여줄 행동 반응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적 차이나 다양한 맥락은 TT가 상정하는 일반화된 법칙이나 이론에 의해서 모두 포섭되기는 쉽지 않다.

TT가 타인마음의 이해를 연역논리적 추론으로 설명한 반면, ST는 타자의 행동반응에 대해 비연역적 추론으로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타자의 믿음, 욕구 등의 마음 상태를 자신이 모의실험(simulation)해보는 유비추론적인 방법을 통해 타자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설명한다. TT에 있어서는 일반화된 이론을 그대로 따라 추론하는 작업이 중요할 뿐 당사자의 심적 능력은 수동적으로 상정되었고 타자의 경험상태는 전혀 상상이나 경험을 할 수 없는 반면, ST에서는 이론 대신 당사자의 마음을 도구로 삼아서 모의실험을 한다는 점에서는 당사자가 자신의 내성 작용을 사용함과 동시에 능동적인 역할로 상정된다.

구체적으로 모의실험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먼저, 당사자는 타자의 입장이나 상황들로 나 자신을 투사한다. 그리고 나서, 그 상황에서 나의 심적 상태가 어떠할지를 상상한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심적 상태를 유비추리를 통해서 타자에게 투사한다. 이 모의실험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TT에서는 자신의 마음에 대한 접근조차 이론으로만 접근되어야 하는 삼인칭적 접근법을 사용했다면, ST의 모의실험은 타자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 안의 내성을 통해 접근한다는 점(Goldman 1989)에서 일인칭적 접근의 방법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또다른 버전의 ST는 (Gordon 1986) 그러한 내성적 능력의 발휘 없는 모의실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당사자의 모의실험 능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이러한 모의실험 능력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증거는 마음이론이나 공감에 대한 논의에서 종종 등장하는 거울뉴런(mirror neuron)(Rizzolatti

1996, 2000)의 존재이다. 거울뉴런은 당사자의 마음상태와 타자의 마음상태가 공명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타자에게 투사되는 당사자의 마음 상태를 타자의 마음 상태로 귀속시키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신경학적 증거가 된다.(Goldman 2005)⁸⁾

ST가 타자마음 이해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인지는 모의실험이 발생하는 장소인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업이 타인마음 이해에 필수적인가에 달려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화가 나 있다는 것을 그의 얼굴표정이나 약간의 움직임만 보고도 금방 알아차리곤 한다. 이는 꽤 직접적이고 자동적인 절차인 것처럼 보인다. 움직임을 보고 타자마음을 이해하는 더 간단한 설명이 있는데 움직임을 내 안에서 모의실험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것을 유비추론을 통해 타자에게 투사하는 더 복잡한 설명을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 ST는 복잡한 사고상태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일 수는 있지만 오히려 보다 즉각적이고 본능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감정 등에 대해서는 그럴듯한 가설로 간주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ST가 성공적인 이론이라면 이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감정 파악의 측면에 대한 더 단순한 설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TT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타자의 마음에 대해 알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 일반 이론에 비추어보고 추론하는 긴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3절에서 깰러거의 이론이 어떻게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2.4 타자의 마음 문제에 대한 인식론적 가정

심리철학에서의 ‘다른 마음의 문제’는 일인칭적 접근과 삼인칭적 접근으로 시작하여, 이 두 접근을 철학적이면서 과학적인 이론으로 보다 체계화하려는 TT와 ST의 시도로 발전했다. 그러나 두 설명 모두 앞서 간

8) TT가 ST를 포섭하는 방향으로 두 이론을 병합하는 이론은 행동반응에 대한 규칙이 모의실험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기도 (Currie and Ravenscroft 2002) 한다.

략히 지적한 바와 같이 아직 그럴듯한 설명으로 평가받지는 못했다. 필자는 이러한 어려움은 타자의 문제에 대한 인식론적 가정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인식론적 접근 자체가 해결을 불가능하게 했다는 의미보다는 ‘다른 마음의 문제’가 제기된 맥락이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TT나 ST는 인식론적 접근을 가정하며, 이는 매우 제한된 논의만 제공한다는 뜻이다. ‘다른 마음의 문제’가 일인칭적 접근과 삼인칭적 접근을 통해 주로 논의되었던 것은 타자의 마음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목표로 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안다’는 상태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을 탐구하게 된다. 그런데, 타자의 마음 이해에 있어서 ‘안다’는 그러한 필요충분 조건을 갖춘다고 해서 타자 마음에 대해 ‘안다’고 할 수 있는가? 인식론에서는 이미 이와 관련하여 필요충분조건으로 알려진 조건들을 갖추어도 지식이 아닌 반례들⁹⁾이 무수히 제시되었고 아직도 ‘안다’는 것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다른 마음의 문제에서 ‘안다’는 경우들은 상술한 필요충분조건을 갖추는 경우가 아닐 수 있다. 조금 더 살펴보자.

먼저, 타자마음에 대한 인식론적 접근은 충분조건인가? 아니다. 타자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타자의 마음 상태가 갖추는 조건들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비인식론적인 의미의 ‘안다’는 정확도가 훨씬 낮은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것은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우리가 자기 자신 그리고 타자의 고통에 대해 ‘안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단순히 이론적인 것 뿐만 아니라 생존가능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내가 나 자신의 팔에 심각한 고통을 느꼈을 때 그 고통이 어느 정도 크기이고 그런 고통을 가지는

9) 인식론에서 소위 ‘게티어의 문제’(Gettier 1963) 로 잘 알려져 있다. 지식의 필요충분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직관적으로 지식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제시되었고, 수정된 조건들이 계속 오랫동안 제시되었지만 어느 버전도 결국 지식의 조건들로 인정되지 못하였다.

조건을 아주 정확하게 (인식론적 의미에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주는 괴로움 때문에 그 고통을 피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고통을 야기하는 원인으로부터 피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생존과 관련된 의미의 ‘안다’는 인류 전체의 생존을 가능하게 했다. 타자의 고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내 아이나 가족 구성원, 혹은 타자가 고통스럽다고 할 때 우리는 그들의 행동 반응 (아픈 곳을 부여잡는다던가 찡그림 등의 표정 그리고 아프다는 발화 등)을 접하고 그 반응들이 그들의 ‘고통을 안다’고 할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들인지를 따져보기보다는 즉각적이고 본능적으로 반응한다. 만약 TT나 ST처럼 나 자신의 고통 반응이나 타자의 고통 반응에 대해서 추론해보는 방식으로 ‘읽’이 구성된다면 그렇게 분석하는 동안 그 고통과 관련된 생존의 가능성은 이미 낮아지고 있을 것이다.

또, 타자마음의 이해에 대한 인식론적 접근은 필요조건도 아니다. 인식론적 조건들은 타자의 마음을 ‘안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타자가 고통스러운 상태라는 것을 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인식적 접근 방법은 일반적으로 삼인칭적 접근을 통해서이다. 삼인칭적 접근의 대표적인 방법은 타자의 행동 반응이나 언명을 통해서 아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런 행동 반응이 특정한 심적 상태를 필연적으로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동일한 행동반응 패턴을 보이는 인형과 인간에게 동일하게 그들의 마음을 ‘안다’고 간주하지는 않는다.

다른 마음의 문제에 대한 이러한 인식론적 접근법의 특징은 타자의 이해가 인식주체와 타자의 독립적 분리에 기반해 있다는 것이다. 이는 TT, ST에 모두 적용되는 가정이다. 인식주체와 타자가 독립적이고 구분된다는 것은 타자 이해에 있어서 인식주체와 타자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점은 타자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 ST와 TT는 개인이나 맥락에 따라 동일한 타자에 대한 이해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다. TT나 ST와 같은 전통적인 타자이해 이론들은 개별성보다는 ‘보편성’을

가정하기 때문이다. 반면, 내가 ‘타자의 고통을 안다’고 이야기할 때 ‘안다’는 의미는 타자의 고통이 정확히 어느 정도이고 어떤 종류의 고통인지를 안다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 그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려하여 그에 맞게 행동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개개인에 따라서 그리고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 상호작용의 내용이 달라지고, 다시 이에 따라 타자 이해의 내용이 개별화될 수 밖에 없다.

이인칭적 접근은 인식 주체와 대상 간의 상호작용과 맥락 파악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맥락성의 파악은 어떻게 가능한가? 다음 절에서는 이 절에서 살펴보았던 타자의 마음 이해에 대한 TT와 ST의 가정들과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이인칭적 접근에 기반한 설명을 살펴봄으로써 타자마음 이해의 실제적이고 응용적인 부분까지 포괄할 수 있는 방법론인지를 검토해보겠다.

3. 타자마음 이해에 대한 깰러거의 이인칭적 접근

이인칭적 접근이 왜 필요한가? 이는 단지 일인칭적 방법론과 삼인칭적 방법론 각각이 가지는 부족한 점 때문만은 아니다. 기존의 두 방법론들은 의식에 대해서나 타자의 마음에 대한 연구에 ‘필요한’ 접근법들이고 이 두 접근법들은 연결되어 서로 참조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두 접근법들이 어떻게 적절히 연결될 수 있는가? 바렐라(1996; 1999)는 두 접근법들을 매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호주관적인 이인칭적 방법(second-person method)이 개입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인칭적 방법이 어떻게 정당성을 얻는가? 앞서, 일인칭적 방법은 삼인칭적인 정당화를 필요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 때 ‘의식적 경험의 상태’라는 주관적이고 일인칭적인 자료들이 확인되는 과정이 상호주관적이며, 이 상호주관적 측면이

이인칭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만약 상호 주관적 측면이 없다면 일인칭적 접근은 삼인칭적 접근으로 환원될 수 밖에 없다.

두 접근법을 병행하여 상호보완하는 방식으로 통합적 방법론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것은 두 접근법이 기본적으로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인칭적 방법은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의식 내용의 질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반면, 삼인칭적 방법은 양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주관적인 측면을 체계적인 방식으로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주관적인 경험 상태는 언어적 정보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비언어적 정보로도 표현되기 때문에 특히 후자를 어떻게 체계화하는가에 대해서는 삼인칭적 접근방법으로 포섭하기에 어려운 부분이다. 이인칭적 방법은 바로 이런 질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상세하게 획득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런 의미에서 갈러거는 이인칭적 접근법을 ‘상호작용 이론(interaction theory) (이하 IT)(Gallagher 2004)로 칭한다. 여기서 ‘상호작용’은 단순히 타자와의 상호작용이라는 의미만 담은 것이 아니라 타자 자체가 여러 단계의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상호작용’은 타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작점을 의미하며, 이 접근은 일인칭적 접근처럼 내적 경험으로부터도 아니고 삼인칭적 접근처럼 과학적 접근도 아니다. 본 논문은 갈러거의 IT가 ST, TT 보다 설명력이 더 크며 이 점인 IT를 선호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를 논하는 데 있어서, 필자는 IT의 이러한 설명력은 ST, TT가 타자의 마음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포함하지 못한 부분을 새로운 피설명항으로 들어옴으로써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절에서는 근래에 발전된 이인칭적 접근에 대한 설명들 중 갈러거 (Shaun Gallagher)¹⁰⁾의 제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TT, ST의 설명들과

10) 발달 심리학과 현상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입장은 갈러거 뿐만 아니라 Hutto 2004, Zahavi and Parnas 2003 등도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갈러거의 입장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비교하여 그 설명적 우위성을 주장하겠다.

3.1 이인칭적 접근에서의 비인식론적, 체화된 '이해' 개념¹¹⁾

갤러거 뿐만 아니라 기존의 두 접근들을 통합하려는 시도, 그리고 이전 절에서 다루었던 이인칭적 접근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상호작용'은 타자 이해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이는 TT와 ST에서의 이해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다. TT와 ST에서의 타자마음 이해 개념에서는 인식 주체와 대상 간에 사회적 상호작용이 필수요소가 아니거나 무관하다. 왜냐하면 일인칭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는 ST나 삼인칭적 접근을 토대로 하는 TT에서는 인식적 주체가 '이해'라는 과정에서 주체로 활동하며 인식대상인 '타자'는 그 구성요소가 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인칭적 접근에서 중요시하는 상호작용의 내용은 인식 주체와 대상 모두가 포함되는 개념이다.

갤러거는 기존 접근에서의 타자 이해와 이인칭에서의 타자 이해의 이러한 구분을 독일어에서 '이해'에 대한 두 가지 다른 단어에 빗대어 대조시킨다.(Gallagher 2004) '이해'라는 독일어는 'Verstehen'과 'Verstandigung'이 있다. 이 두 단어는 모두 '이해'로 번역이 되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조금 다르다. 전자는 어떤 대상이나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는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 대해 그 대상과의 상호이해에 도달한다는 의미이다. 전자의 경우 이해의 방향이 인식주체로부터 대상을 향해 있으며, 후자의 경우 이해는 쌍방향의 특성을 가진다. 그 결과로 전자의 경우 '이해'는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 이렇게 두 요소로 구성되는 반면, 후자의 경우 인식주체, 인식 대상 그리고 상호 이해로 구성된다. 여기서 '상호

11) 본 논문은 현상학적 입장에서 차용하는 체화된 입장(Embodied Theory, ET)과 갤러거의 이인칭적 입장(Interaction theory, IT)을 구분한다. 갤러거의 상호작용 이론은 현상학적 관점에 기반을 둔 체화이론과 발달심리학적 자료를 결합하여 보다 체계적인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물론 이는 개념적 구분이며 IT가 ET의 입장에 토대를 두었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해'라는 목표는 인식 주체와 대상이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묻고 대답하고 생각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등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각 개인이 상대와 독립적으로 있을 때 개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향해 함께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대조점은 4절에서 타자 이해를 목표로 하는 기존의 상담과 최근에 제안된 철학상담의 다른 가정에도 적용하여 논의할 것이다.

3.2 깰러거의 세 단계 이론

깰러거는 타자와 상호작용하는 이인칭적 접근의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이인칭적 접근이 어떻게 기존의 TT와 ST와 차별적 이해를 제시하는지를 논한다. 첫 번째 차별성은 타자의 마음에 접근하는 도구와 그 특성에서의 차이이다. TT와 ST는 추론을 통해 타자의 마음에 접근한다고 함으로써 이론과 내성을 도구로 삼은 반면, 깰러거의 상호작용이론은 타자 마음을 이해하는 도구로써 '지각 경험'을 꼽는다. 타자와의 상호작용은 아기가 부모와의 눈맞춤이라는 신체적 지각으로부터 시작한다. 또, 아기는 타자의 움직임이나 표정을 지각하고 그를 흉내내는 행동을 하는데 (Meltzoff and Moore 1977, 1994) 아직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아기는 출생 직후부터 타자들의 웃음과 행동에 대하여 반응하기도 하면서 주변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욕구, 의도, 믿음 등의 심적 상태에 대한 이해가 더 세련되어진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방식은 아기 본인과 아기에게 타자가 분리되어 있다는 지각 그리고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감응감(proprioceptive sense)이 기반이 된 것이다. 이에 기반하여 타자의 몸이 자신과 비슷한 몸이라는 자각 하에 흉내내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Bermudez 1996) 이러한 자각은 상호작용이 가능한 생물과 상호작용이 불가능한 무생물을 구분하게 만든다. 이에 대한 증거는 아기가 사람에게는 흉내내거나 눈맞추기, 그리

고 시선 따라가기 등의 행동반응을 보이는 반면, 사람이 아닌 무생물에게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타자의 시선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가능하게 되는데, 이를 눈 방향 탐지자(EDD. eye-diretion detector)(Gallagher 2004, 2008, 2013)로 칭한다. 눈방향 탐지자는 단순히 눈의 방향 뿐만 아니라 입이나 손, 그리고 다른 몸의 부분의 움직임을 통칭하는 것이다.

이때 깰러거가 차용하는 유아의 발달과정에서의 눈방향 탐지자는 TT에서의 ‘마음이론’ 메커니즘과는 그 특성이 완전히 다르다. 아기가 엄마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은 TT에서 이야기하는 이론적인 절차나 개념적 작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타자의 감정은 상대방의 신체 표현이나 감각운동 그리고 지각적인 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TT가 마음을 순전히 심적이고 외부로 드러나지 않아서 이론을 세워서 이해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한 것과 대조적으로, 마음을 신체적인 측면에서 먼저 접근한다.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점은 ‘지각경험’의 특성인 ‘자동성’, ‘직접성’의 특성들이 깰러거의 이인칭적 접근의 특성으로 제시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성을 가진 이인칭적 접근은 어떻게 발달하는가? 필자는 깰러거의 설명을 ‘삼단계 이론’으로 형식화하려 한다. 1단계와 2단계는 깰러거 자신이 형식화하였고 3단계는 그의 생각을 필자가 세 번째 단계로 형식화한 것이다. 먼저 요약하자면, 일차적 상호주관성은 보호자와의 상호작용에서 그리고 이차적 상호주관성은 타자와 세계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에서 발생한다. 그에 기반하여,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서사에 기반한 상호주관성이 형성된다.(Gallagher et al. 2013)

일차적 상호주관성 단계

첫 번째 단계는 ‘1차적 상호주관성 단계’이다. 깰러거가 타자 마음의

이해를 본질적으로 지각 경험으로 본 근거는 타자 마음에 대한 이해가 유아와 부모와 상호작용이 신체지각의 형태이기 때문이다.¹²⁾ TT나 ST에서는 타자와의 상호작용이 없어도 타자를 관찰함으로써 타자의 마음을 추론할 수 있는 반면, 깰러거의 상호작용 이론에서는 타자와의 지각적 상호작용이 반영되어야 비로소 ‘이해’한다고 할 수 있다. 깰러거는 이 ‘상호작용’이 4세 이전에 이미 나타난다는 데에 주목한다. 이는 TT가 4세를 마음 이론이 처음 발현되는 시기라고 보는 것과 대조된다.(Gallagher et al., 2013, 187~189) 이 감각운동적 측면은 현상학자인 막스 셸러(2013)의 이인칭적 접근의 시도에서도 제안되었었다. 그런데 필자가 깰러거의 접근에 주목하는 이유는 깰러거는 감각운동적 측면에서 더 나아간 상호주관성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셸러의 상호주관적이고 이인칭적인 설명이 자칫 일인칭적 설명으로 환원되기 쉬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감각운동적 측면을 통해 이인칭적 접근을 제안하는 것은 기존의 이론 중 하나인 ST와 어느 정도 유사해보이지만 다른 장점이 있다. 첫째, 타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주된 장소와 단계가 다르다. ST는 우리가 타자의 외양과 행동을 관찰하고, 그 다음 ‘나 자신’의 경우에 비추어, 그 다음 그 타자의 심적 경험을 유비 추론하는 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한다. 반면, 깰러거는 타자 이해는 지각 차원에서 곧바로 이해된다고 설명한다. 둘째, 인식주체의 이해의 본성이 다르다. TT나 ST에서의 추론은 기본적으로 인지적인 반면, 깰러거가 예로 든 유아가 몸의 움직임을 통해 타자를 이해하는 과정은 비인지적이고 비개념적이다. 셋째, TT에서

12) 이 지각적 차원은 막스 셸러(2013)와 같은 현상학자들도 그 비인지적 특성에 주목했던 부분이다. 다만 셸러는 성인의 지각적인 타자이해의 측면을 주로 다루었고, 발달심리학적 사실과 같이 유아가 거치게 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은 현상학적 측면을 보강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아기 특히 한 살 이전의 아이들은 이러한 지각적 특성의 타자이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제시하는 의식적 추론이든 ST에서 제시하는 유비적 추론이든 그 추론은 타자의 마음에 대한 직접적 접근을 할 수 없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즉 타자의 마음은 블랙박스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추상적인 도구를 만들어 그를 통해서 타자의 마음에 접근하고 추론한다. 반면, 감각운동적 측면으로부터 타자의 마음에 접근하는 방법은 간접적 접근이 아닌 직접적이고 자동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각적 차원, 즉 운동감각적 측면은 타자 이해의 발생론적 그리고 토대적 내용을 설명할 수는 있으나 타자 이해의 모든 측면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은가? 운동감각적 측면은 자동적이고 기본적인 감정반응 등을 이해하기에는 매우 적합한 설명이지만, 더 맥락 의존적이거나 복잡한 타자 이해에 대하여는 그 이상의 설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운동감각적 측면은 이인칭적 접근에 대한 의미있는 첫걸음이며 더 온전한 설명은 다음 단계에서 설명된다.

이차적 상호주관성 단계

타자 이해의 그 다음 단계는 단순히 부모와 아기와의 상호작용을 넘어서서 보다 많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단계로,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초점을 맞추는 대상이나 사건을 이해하는 단계이다. 홉슨은 이를 ‘이차적 상호주관성(secondary intersubjectivity)’ (Hobson 2002, 62) 이라고 이름붙였다. 이차적 상호주관성의 의미는 타자의 몸 그 자체만으로는 상호 주관적 이해에 도달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표정이나 몸짓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세계 속에서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타자를 넘어서서 그를 둘러싼 세계를 공유하여 그 ‘맥락’을 배우는 단계이다. 이 시기에 우리는 단순히 타자를 관찰하는 이원적(dyadic) 관계에만 있지 않고 그 타자가 무엇을 관찰하는지 그리고 다른 타자들도

그 동일한 것을 관찰하는지를 보는 공유된 주의 메커니즘(SAM: shared attention mechanism)을 가진다.(Gallagher et al. 2013, 192~193) 이 메커니즘을 가지는 시기는 생후 1년 즈음으로 관찰된다. 생후 18개월 즈음에는 타자의 의도를 알아채는 시기로 관찰된다. 만약 한 성인이 장난감 조작을 못하고 찢찢매는 것을 볼 때, 아기는 자신이 그 장난감을 들고 성공적으로 조작해서 그 성인에게 보여준다. 즉, 성인이 의도하는 바를 알아챘다는 의미이다. 생후 2년 즈음에는 타자가 가장하는 행위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아기는 엄마가 실제 전화기가 아닌 물건으로 전화기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알아차린다.(Leslie 1994) 이러한 발달단계는 첫 번째 단계와 달리, 단순히 상대방의 몸이나 행동으로부터만이 아니라 주변환경이나 상황까지 파악하여 의도를 파악하는 보다 세련된 마음읽기 단계를 보여준다.¹³⁾

일차적 상호주관성의 단계에서 TT, ST와 다른 점은 단계가 한 단계이며, 지각적 차원에서의 이해라는 점이였다. 이차적 상호단계에서 TT, ST와 다른 점은 맥락의 파악이다. TT와 ST는 공히 타자의 행동이라는 정보로부터 추론(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을 통해서 숨겨져 있다고 가정되는 ‘마음’의 내용을 알아낸다고 가정한다. 이 때 맥락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타자 마음의 내용은 잘 반영되기 어렵다. 반면, 깰러거의 IT는 동일한 행동 양상이라도 대상이 어떤 타자인지, 그 타자의 주변 환경과 맥락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 의미를 해석하게 되는 전체론적 특성을 가진다.

서사적 상호주관성 단계

타자마음 이해에 대한 깰러거의 그 다음 단계는 서사(narrative)와 관련된 상호주관성이다. 이 단계는 단독으로 발달될 수 없고, 앞서 소개한

13) 깰러거는 이런 점에서 후설의 영향을 받았다. 이 논문은 가장 최근까지 발달된 이론을 중심으로 논의되기 때문에 후설이나 다른 현상학자의 논의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1단계와 2단계의 발달을 기반으로 해서 더 복잡한 상호주관성의 맥락을 알게 되는 단계이다. 동일한 주변환경이나 타인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은 동일한 자극에 대해 서로 매우 다른 다양한 생각이나 행동을 한다. 이러한 다양한 반응들은 TT나 ST의 설명 틀로서는 예측하거나 설명하기 어렵다. 깬러거의 구분에 따르면, 1단계가 아기가 부모와 같은 생명체와 비생명체를 구분하는 단계, 그리고 2단계가 공유된 시선과 주의를 통해 의도를 파악한다면, 3단계는 언어 사용이 발달하면서 상대방의 ‘생각’을 파악하는 단계이다.(Gallagher et al. 2013, 195~197) 이러한 방식으로 타자마음의 이해는 점점 세련되어진다.

필자는 3단계의 상호주관성을 2단계의 주체내적(intrasubjective) 차이에 대한 자각에서 더 나아가, 개개인들 간의 다종다양한 타자이해를 파악하는 간주관적(intersubjective) 차이에 대한 자각으로 본다. 필자는 여기서 3단계의 상호주관성은 ‘인지적’ 특성을 가지며, 1,2 단계의 지각적 특성과 대조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지각’이란 그 상태 자체를 긍정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상태인 반면, ‘인지’는 그 상태를 ‘메타인지’ 즉 그 인지상태를 성찰해볼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래서 이 3단계에서는 언어를 통해서 타자들과 혹은 스스로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점점 더 세련된 타자 이해가 가능하다. 게다가 이러한 과정은 그 타자들과 그러한 서사를 공유하면서 서로 그러한 상호이해를 높여나간다는 ‘사회성’을 획득하게 한다. 이러한 사회적 상호이해의 여러 층위의 획득을 통해서, 2단계에서 얻었던 것보다 더 복잡한 맥락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깬러거의 3단계에 대한 설명은 서사의 특성이 인지적이고 언어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일견 TT에서의 인지적 설명과 유사해보인다. 그러나 다음 절에서 필자는 차이점을 밝히고 깬러거의 이론이 기존의 설명보다 어떤 점에서 더 설명력이 있는지를 견주어보겠다.

3.3 갤러거의 IT의 설명력: TT, ST와의 비교

3.3.1 설명력의 견지에서 본 IT와 TT

하나의 이론, 혹은 가설이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은 그 내용의 그럴듯함이 아니라 피설명항, 즉 설명되는 대상 혹은 현상들의 특성들을 더 정확하고 더 많은 범위를 설명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만약 갤러거의 IT가 TT나 ST보다 타자의 마음읽기와 관련된 현상에 대해 더 폭넓게,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설명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읽기에서 주로 설명의 대상으로 삼는 실제 현상은 자폐증이며 이에 대한 TT의 설명은 이전 절에서 소개하였다.

갤러거의 설명이 TT보다 더 큰 설명력을 가지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갤러거의 설명은 TT와 ST가 주로 설명대상으로 삼는 자폐상태의 사회적 능력의 결여뿐만 아니라 비사회적 능력의 결여까지 설명한다는 점이다.(Gallagher 2004, Gallagher et al. 2008) TT의 설명은 자폐상태의 여러 증상들 중 사회적 능력의 결여만 주로 설명하려 하기 때문에¹⁴⁾ 비사회적 능력 예컨대, 반복적인 운동행동이나 물건의 한 부분에 집착하기 등의 상태는 TT의 설명을 적용하기 어렵다. 물론 자폐의 한 측면이라도 잘 설명한다면 그 자체로 큰 기여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TT가 중요하게 사용하는 중요한 테스트인 거짓 믿음 테스트를 통과하는 자폐아동들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는 TT의 설명력에 문제를 제기한다.

무엇보다도 필자가 주목하는 점은 갤러거의 세 단계 설명은 자폐 증상들 중 사회적 측면과 비사회적 측면을 별도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세 단계의 발달적 설명으로서 두 측면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14) 이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자폐아들의 사회성 결여가 주로 알려져 있을 뿐 비사회적 측면의 결여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주는 전면적인 설명이라는 점이다. 자폐증상이 있는 아동들 중에서도 마음이론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여전히 정합성이 결여된, 전형적인 자폐적인 행동양식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깬러거의 삼단계 설명에 기반하여 보자면 자폐증상을 가진 아동들은 단순히 타인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설명하기보다는 동시에 기어가고 걷고 앉고 눕고 등의 신체의 감각자동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능력은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깬러거의 IT는 자폐증상의 사회적 측면의 결여 뿐만 아니라 비사회적 측면의 결여까지도 상호주관성의 단계를 활용하여 설명가능하다. 이 점에서 IT는 TT나 ST가 간과한 피설명항의 측면까지 설명을 제공하므로 설명력의 측면에서 더 선호할만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3.3.2 타자 이해는 지각 더하기 모의실험(ST)인가, 지각 자체(IT)인가

앞서 논의한 것처럼 IT의 설명은 TT의 설명보다 자폐의 더 많은 측면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며 TT가 설명하기 어려운 예외적 사례들도 설명가능하다는 점에서, 타자마음 이해에 대한 선호할만한 설명이다. 그렇다면 TT와 경쟁관계에 있는 ST의 옹호자들은 ST야말로 IT에 대적할만한 설명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ST는 IT가 중요시여기는 타자 이해의 자동운동적 측면을 제시하기 전 이미 타자이해에 연루되는 지각적인 측면(추론과 대조적인 의미에서)을 주요한 타자마음 이해의 특징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ST가 우리의 타자 이해는 일종의 모의실험(simulation)이라고 할 때, 그 증거로 거울뉴런에서 보이는 당사자와 타자 간의 공유된 표상을 언급한다. 갈레세와 골드만(1998)은 우리가 타자와 마주칠 때 우리 뇌의 전운동 피질과 브로카 영역에 있는 거울 뉴런들이 활성화된다는 리졸라티의 연구결과(2000)를 언급하면서 이 메커니즘들은 타자의 의도에 대한 모의실험을 자동적으로 만들어낸다고 설명한다.

거울 뉴런의 존재나 이러한 메커니즘이 타자 마음의 이해와 연관된다

는 점을 중요하게 언급한다는 점에서 ST와 IT는 유사하다. 게다가 그러한 메커니즘인 자동적이고, 즉각적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도 동일하다.¹⁵⁾ 다른 점은 ST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모의실험’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하는 점이고, IT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별도의 모의실험의 절차 없이 처리된다고 본다. 그렇다면 ST와 IT간의 설명력을 견주어볼 때 쟁점은 그러한 자동운동반응적인 신경과정이 모의실험의 일종인가 아닌가이다.

필자는 두 설명에서의 공통점인 메커니즘이 과연 어떤 주체를 발현시키는가가 쟁점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이인칭적 설명을 추구하는 만큼 당사자와 타자 양자의 심적 상태 모두가 잘 고려되어야 한다. ST에서는 행위를 수행할 때 활성화되는 운동회로들을 모의실험의 일종으로 보는데, ‘모의실험’이라는 의미 자체는 그 실험이 나 안에서 수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타자 안에서 수행된다면 그것은 ‘모의’가 아니라 ‘실제’가 되기 때문이다. 즉, 모의실험은 나의 마음 안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타자의 마음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상태와는 다소 독립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거울 뉴런과 같은 신경학적 증거를 통해서 나와 타자가 공유하는 신경표상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나와 타자를 모두, 동시에 포함하는 모의실험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동운동반응의 메커니즘은 모의실험인가, 지각인가? 필자는 ST의 ‘모의실험’이 신경과학적인 공동활성화의 메커니즘이라는 경험적 증거를 이용하면서 ‘지각적’인 자료라는 인상을 주지만 결국 ‘모의실험’은 그 지각적 자료로부터의 ‘추론’(구체적으로는 유비추론)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각’ 이외에 ‘모의실험’이라는 한 단계를 더 추가하는 셈이 된다고 본다. ST는 이 한 단계를 더 추가하면서

15) 이러한 설명은 물론 ST의 버전이 명시적 ST인지, 아니면 암묵적 ST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암묵적 ST인 경우, 모의실험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명시적 ST에 대한 반대결해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암묵적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IT의 견해와 더 많은 유사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지각’ 단계만이 아니라 ‘모의실험’의 단계를 거쳐야 상호주관성이 형성된다고 주장하는 셈이 된다. 반면, IT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지각’ 자체가 상호주관성을 드러내고 이것이 행동 과정에서 나타난다고 본다.

필자는 이 두 설명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두 설명이 동일한 범위를 포괄하는 설명이라면 그 다음 단계는 두 이론을 견주는 데 사용하는 단순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동일한 현상을 무리없이 설명하는 이론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 가능하면 단순하고 간결한 설명이 선호된다. 이런 점에서 IT는 ST보다 더 단순하고 간결한 설명이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다단하고 여러 차원이 내재해 있는 대상이므로 단순성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¹⁶⁾ 무엇보다도 IT는 ST보다 더 많은 부분들을 설명한다. ST의 ‘모의실험’은 나에게서 수행되기 때문에 소위 ‘타자의 마음’이 타자의 마음의 내용인지 내 마음의 내용인지를 구분할 방법이 ST에서 제시되거나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은 ST의 설명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4. 이인칭적 접근과 실천적 마음 이해에의 함의

타자의 마음 문제가 제기되는 서양철학, 특히 영미철학에서는 20세기 이래로 개념분석을 주요한 방법으로 사용해왔다. 그러한 이유로, 타인마음의 문제는 영미심리철학에서 주로 이론적인 작업이었기에 실존철학이나 현상학, 해석학과 비교하여 실천적이고 응용적인 적용과는 무관한 것으로 간주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주요한 철학의 응용분야로 제시되고 있는 ‘철학상담’은 기본적으로 타인마음의 문제라는 심리철학의 고전적 이

16) 이 중요한 측면을 간과한 점을 익명의 심사자께서 지적해주셨음에 감사드린다. 이는 또한 논문의 흐름과도 정합적인데 심사자의 지적 덕분에 빈 부분을 채울 수 있었다.

슈의 현실적 적용이다. 그리고 이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다. 이 점에서, 타인의 마음을 블랙박스로 가정하는 TT나 ST는 철학상담의 심리철학적 가정으로 적절하지 않다. TT와 ST는 오히려 타인에 대한 이론적 파악과 원인의 제거를 목표로 하는 일반 상담에 더 잘 어울리는 출발점이다. 이와 달리, 철학상담은 그 특성상 IT와 같은 이인칭적 접근이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TT와 ST 이론이 제안되면서 타인 마음 문제에 대한 비교적 체계적 이론이 발전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철학에서의 응용보다는 오히려 심리학이나 의학 분야의 상담에서의 이론적 토대로 활용되어왔다.¹⁷⁾ 반면, 필자는 깰러거의 이인칭적 접근 이론에서 보았던 세 단계는 철학상담의 특징들과 대응되며, 이런 점에서 이인칭적 접근은 철학상담의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논하기 위해, 필자는 깰러거 이론에서의 삼단계 즉 일차적 상호작용, 이차적 상호작용, 그리고 서사적 상호작용이 철학상담의 특징인 ‘상호성(reciprocity)’, ‘비지시성(non-directiveness)’, ‘반성성(critical thinking)’과 각기 관련된다는 것을 간략하게 보일 것이다. 이를 통해서, 이인칭적 접근의 내용이 철학상담의 이론적 토대로서 역할할 수 있다고 주장하겠다.

1단계의 일차적 상호주관성과 ‘상호성’

먼저, 철학상담의 ‘상호성’의 특성이 부각된 것은 아헨바흐(Achenbach, G.B.)의 ‘항해사 비유’를 기원으로 한다.(이영의 2009, 395) 상담을 요청한 내담자는 ‘정상적인 속력과 진로를 상실한 배의 선장’과 같으며, 철학상담가는 그 배에 승선한 항해사이다. 여기서 항해사가 할 일은 그 선장에게 방향과 진로를 직접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17) 철학상담과 다른 종류의 상담과의 대조는 이영의(2009), 이진남(2013), 한우진(2015)을 참조하라. 이진남은 비지시성은 철학상담의 본질적 특성은 아니라고 논한다.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논의는 이 논문의 전체 논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함께 검토하여 선장이 다시 그 배를 지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는 상담에서 타자는 치료‘대상’이 아니라 함께 지평이 넓어지는 동반자의 관계라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이는 깰러거의 이인칭적 상호주관성 단계인 지각적 공명성과 맥을 같이 한다. 이미 4세 이전에 형성되는 감각운동적 측면에서의 마음읽기 능력은 상대를 대상으로 놓고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표정이나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 자동적인 감정이해가 가능한, 일종의 체화된 공명작용이다. 이런 점에서, 당사자인 아기만이 타자 이해의 주체가 아니라 타자로 이해되는 부모 또한 타자 이해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러한 상호성은 단순히 당사자(상담자)와 타자(내담자)가 좋은 관계를 형성한다거나 이야기를 주고받고 내용을 공유한다는 심리상담의 목표를 넘어서서, 관계의 목표가 일방적이거나 비대칭적이지 않다는 의미이다. ST도 감각운동적 측면이나 신경학적 토대를 이야기하면서 마음읽기 능력을 거론하였지만, 이인칭적 접근에 기반한 설명처럼 ‘주체’와 ‘대상’이라는 비대칭성을 여전히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인칭적 접근과는 기본적 가정을 달리한다.

2단계의 이차적 상호주관성과‘비지시성’

이단계의 이차적 상호주관성에 대한 깰러거의 설명에서 강조되는 맥락성이란 타인마음의 이해가 단순히 나와 대상 간의 이원적 관계가 아니라 다차원적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다른 여러 사람들과의 맥락을 통해서 타자를 이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타자 이해의 단초인 타자의 몸 움직임 그 자체가 다양한 해석에 열려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철학상담의 두 번째 특징인 비지시성과 관련된다.‘비지시성’이란 상담자가 내담자의 심리를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하라는 원리이다. 이 비지시성은 단지 철학상담 뿐만 아니라 모든 상담의 기본원리일 것이다. 그러나 앞서 TT, ST와 이인칭 이론의 대조에서 보았듯이 전체 맥락을 고려하라는

기본원칙은 같더라도 그 구체적 절차는 다를 수밖에 없다. 재차 언급하자면, TT에서의 맥락이란 각기 일반이론 안에 포섭되어야 하는 내용이며, ST에서의 맥락이란 타자의 정황으로 당사자의 내성 안에서 모의실험을 통해 매개되는 내용이다. TT와 ST는 공히 타자의 마음을 블랙박스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섭되거나 매개되는 맥락의 내용은 타자의 마음 내용인지, 관찰하거나(TT) 모의실험하는(ST) 주체의 마음 내용인지, 어떤 특정 맥락이 반영되었는지를 구분할 방법이나 기준이 사실상 없다.

반면, 깰러거의 이인칭적 이론에서 이인칭적 상호주관성은 이론이나 모의실험에 의해 매개되지 않고 타자를 둘러싼 세계가 반영되는 것으로서 타자 안의 맥락 그리고 맥락 안의 타자를 이해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타자의 존재 자체를 또다른 타자나 환경과 연관되어 있는 맥락성으로 받아들이는 차원은 심리상담이 타자를 치료하려하거나 인위적으로 변경시키려 하는 것과 대조적인 철학상담의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도와준다.

3단계의 서사적 상호주관성과 ‘반성성’

철학상담의 세 번째 특성인 ‘반성성’은 철학 본연의 특성을 잘 드러낸다. ‘반성’적 태도는 스스로 자신의 사고와 행동의 이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관점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보통 소크라테스의 문답법 내지 산파술로 알려져 있지만 서양 동양을 막론하고 ‘철학하기’의 방법이기도 하다. 이 반성성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기존에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믿음이나 행동들을 다시 비판적으로 생각해본다는 ‘메타(meta)’의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는 단순히 내담자가 생각을 새로운 차원으로 변경해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담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공히 여러 관점들을 경험하고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다. 필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러한 반성의 과정이 지각적 차원이 아니라 언

어가 전제된 보다 인지적, 개념적 차원에서 수행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지적, 개념적 특성은 갤러거의 이론에서 세 번째 단계인 서사적 상호주관성에서 다종다양한 맥락을 파악하는 메타인지적 특성과 일맥상통한다. 무엇보다도 서사적 상호주관성의 단계에서는 타자들과의 언어적 대화를 통해서 상호 그 서사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성이 획득되는데, 이러한 사회성은 그 대화가 실제로 존재하는 타자이든 가상적으로 존재하는 타자이든 혹은 스스로이든 끊임없는 반성적 문답을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이다. 반성적 문답은 동일한 상황이나 자극에 대한 다양한 맥락들을 경험하고 성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철학상담의 반성적 특성은 갤러거의 서사적 상호주관성에서의 메타인지적 차원과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심리상담은 이러한 반성적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주로 내담자에게 적용되며 철학적 방법을 차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ST와 TT의 가정처럼 타자의 마음은 블랙박스 안의 연구 대상으로 남기 때문에 내담자가 상담자나 타자들과의 대화를 통한 사회성까지 획득하는 것은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

6. 결론

지금까지 이 논문은 갤러거의 이인칭적 접근인 IT의 삼단계 설명을 살펴보고 이를 기존의 설명인 TT와 ST와 비교하였다. TT의 마음이론 메커니즘이나 ST의 거울뉴런 메커니즘으로 타자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대신 IT는 타자와 그 환경 등과의 상호작용 자체가 사회적 인지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이러한 시도가 기존의 인식론적 가정이나 블랙박스 가정 등을 벗어난다는 점에서 타자의 개별성과 맥락성을 반영한다고 평가하였다. 타자마음의 이해는 기본적으로 타자와 주체와의 상호

작용을 근본 토대로 하며, 이 점에서 이인칭적 접근방법은 경험 주체의 능력이나 과학적인 연구에 대한 과신 모두를 제어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일인칭적 접근법이나 삼인칭적 접근법이라는 설명은 타자의 마음에 접근하는 일인칭적 혹은 삼인칭적 접근이라는 양구도의 틀을 벗어나 이인칭적(second-person perspective) 접근법이 구체적인 사회문화적 맥락이나 생동하는 현실을 반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TT와 ST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면하고 상호작용하여 이해할 때 발생하는 구체적인 경험적 증거와 실제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자마음 이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라고 할 수 없다.

IT와 TT, ST의 이러한 대조적 특성들은 철학상담과 심리상담의 대조적 특성들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 필자가 주목한 점은 심리상담이 특히 TT를 이론적으로 가정하는 반면 깰러거의 IT 설명에서의 삼단계의 특성인 상호성, 비지시성, 반성성은 철학상담의 특성들과 대응이 된다는 점이다. 이 점은 타자마음 이해에 대한 철학의 실천적, 응용적 분야인 철학상담의 이론적 정당화와 토대로서 이인칭적 접근을 위치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다른 종류의 상담과의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철학에서의 이론영역과 실천영역의 연관성을 넘어서서 철학 그 자체가 이론과 실천을 담보해야 하는 규범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¹⁸⁾

18) 하지만 이러한 특성이 타자이해의 철학응용인 철학상담의 상대적 우위성이나 심리상담의 한계로 독해될 필요는 없다. 필자는 본문의 TT, ST와 깰러거의 이론을 비교하는 부분에서 깰러거의 이차원적 이론이 기존의 두 이론들보다 더 설명력이 크며, 기존의 이론들은 피설명항의 제한된 부분만을 그것도 불충분하게 설명한다고 하였다. 즉, 기존 이론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필자의 견해가 일관적이지 않다고 지적받을 수 있다. 기존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그 기존 이론들의 전제를 가정하는 철학 외 분야의 상담은 한계보다는 역할분담을 거론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론적 한계가 실천적 한계를 함축 혹은 함의하지는 않으며 상호 독립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막스 셸러(2013) 「동감의 본질과 형식들」 이을상 옮김.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 S cheler, Max. 1923. *Wesen und Formen der Sympathie*, Bouvier: Bonn.
- 이기홍(2004) 「통속심리학적 타자 이해 원리에 대한 3가지 해석:이론이론, 시뮬레이션 이론, 구현 이론의 재구성」 철학, 80집, 315-340쪽.
- 이영의(2009) 「철학상담과 심리치료의 관계: 아헨바흐의 견해를 중심으로」 범한철학, 53집.
- 이진남(2011) 「철학상담과 심리상담」 철학논집, 제26집, 9-34쪽.
- 한우진(2015) 「철학상담치료의 형이상학과 행위자 실천추론」 철학탐구 38집, 275-304쪽.
- Baron-Cohen, S., A. Leslie, and U. Frith. 1985. "Does the autistic child have a theory of mind?" *Cognition* 21: 37 - 46.
- Descartes, R. and Cottingham, J., 1946; 2013. René Descartes: *Meditations on First Philosophy: With Selections from the Objections and Repl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oese, T. and Gallagher, S. 2012. "Getting IT together: Integrating developmental, phenomenological, enactive and dynamical approaches to social interaction." *Interaction Studies* 13(3): 434-66.
- Gallagher, Shaun. 2001. "The practice of mind: Theory, simulation, or interaction?" *Journal of Consciousness Studies* 8(5 - 7): 83-107.
- Gallagher, Shaun. 2004. "Understanding interpersonal problems in autism: Interaction theory as an alternative to theory of mind." *Philosophy, Psychiatry, and Psychology* 11(3): 199-217.
- Gallagher, Shaun and Daniel Hutto. 2008. "Primary interaction and narrative practice." In *The Shared Mind: Perspectives on*

- Intersubjectivity*, edited by Jordan Zlatev, Timothy P. Racine, Chris Sinha, and EsaItkonen, 17 - 38. Amsterdam: John Benjamins.
- Gallagher, S. and Zahavi, D., 2013. *The phenomenological mind*. Routledge.
- Gallese, Vittorio and Alvin Goldman. 1998. Mirror neurons and the simulation theory of mind-reading.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2: 493-501.
- Goldman, Alvin I. 1989. "Interpretation psychologized." *Mind and Language* 4: 161-185.
- Goldman, Alvin. 2005. "Imitation, mind reading, and simulation." In *Perspectives on Imitation II*, edited by Susan Hurley and Nick Chater, 79 - 93. Cambridge MA: MIT Press.
- Gordon, Robert M. 1996. "'Radical' simulationism." In *Theories of Theories of Mind*, edited by Peter Gettier, E. 1963. Is Justified true belief knowledge? *Analysis* 23, 121-123.
- Hutto, D. (2004). The Limits of Spectatorial Folk Psychology. *Mind & Language* 19(5): 548-573.
- Leslie, A. 1994. ToMM, ToBy, and Agency: Core architecture and domain specificity. Ed. Hirschfeld, L., and S. Gelman. *Mapping the mind: Domain specificity in cognition and culture* (pp. 119 - 4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zzolatti, Giacomo, Leonardo Fogassi, and Vittorio Gallese. 2001. "Neurophysiological mechanisms underlying the understanding and imitation of action." *Nature Review Neuroscience* 2: 661 - 670.
- Wimmer, H. and Perner, J., 1983. Beliefs about beliefs: Representation and constraining function of wrong beliefs in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deception. *Cognition* 13(1): 103-128.
- Zahavi, D. & Parnas, J. 2003. Conceptual problems in infantile autism

철학탐구 제42집

research: Why cognitive science needs phenomenology. *Journal of Consciousness Studies* 10(9): 53-71.

Second-person approach to Other Minds' Problem and Philosophical Counselling

Kim, Hyo-eun (Ewha Womans Univ.)

Other minds' problem in philosophy of mind deals with the question of how we ascribe mental states to other persons, and how we use the states to explain and predict the actions of those other persons. Theory-theory and simulation theory, each of which is the third-person and the first-person families of theories of mind, have been developed for decades. This paper argues for an alternative, second-person account of mindreading. The aim of this paper is twofold. First, I argue that Gallagher's Interaction theory is a promising second-person account of others' minds problem. Second, I argue that the interaction theory can be the theoretical basis of philosophical counselling. I specifically focus on the three stages of intersubjectivity in Gallagher's Interaction theory. I argue that his theory explains broader range of symptoms of autism rather than theory-theory and simulation theory. Further, the false-belief task on which the two theories depends in evaluating others' mindreading turns out to be an inadequate testbed. As part of showing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interaction theory, I also argue that the three stages of intersubjectivity in Gallagher's theory correspond to reciprocity, non-directiveness, critical thinking of philosophical counseling.

철학탐구 제42집

Key words: Second-person Approach, Interaction Theory, Theory-theory, Simulation Theory, Gallagher

김효은 E-mail: qualia9@gmail.com

투 고 일	2016년 04월 15일
심 사 일	2016년 04월 27일
게재확정	2016년 05월 11일